

유라시아 역사문화 이해의 기초

문치웅 장우순 김현일
이상준 권인호



홍익재단 출판부

유라시아 역사문화 이해의 기초

문치웅 장우순 김현일
이상준 권인호

본 저술은 2017년 4월 유라시아 역사문화콘텐츠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 아시아, 유럽, 또는 유라시아 공통의 역사와 문화 이해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2017. 10. 10

홍익재단 출판부

| 저자소개 |

문치웅

일본 Waseda University 박사

한양대, 연세대 교수 역임

현재 흥익재단 종합연구원장 재직

International Journal Editor 2회

국제 저널 논문 32편, 국내저널 63편 발표

International Conference 조직위원장 1회

International Conference 조직위원 4회

국내학회 이사 4회, 특허 10건 보유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IE 우수논문상 수상

정부과제 기획, 평가 위원, 정부과제와 국제간 공동 과제 수행 20건 이상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10년 연속 등재

장우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현재 흥익재단 책임연구원 재직 중

주요논저로 「정의부의 지도이념 연구」, 「성재 이동휘」,

「대한민국임시정부」, 「신한청년단」,

「1920년대 만주조선족사회의 교육과 세대교체」,

「1920년대 만주한인사회의 세대교체와 운동이념의 변화」

『조선족자치주수립50주년 기념 조선족발자취총서』(발간작업 참여) 등이 있다.

김현일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문학박사)

현재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주요 논저로는 『서양의 제왕문화』 『동학의 창도자 최수운』,

『강증산의 생애와 사상』 (공저), 『프랑스 노동운동과 사회주의』(공저),

『마테오 리치와 동서양 문명교류』, 『프랑스혁명과 기업가들』,

『프랑스 대기업가 루이 르노』, 『면공업과 기업가』 등 다수가 있으며,

번역서로는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 『금과 화폐의 역사』, 『프랑스문명사』 등이 있다.

이상준

한양대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졸업(문학박사)

일본 도카이 대학(東海大學) 특임강사

인천전문대학 교수 역임

현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동아시아 고대학회 회장 역임

현재 대한어어일문학회 편집위원장

현재 인천대학교 Global Language Institute 설립 추진 위원장

저서로는 아시아 문학의 입문과 이해(저서) 등 다수의 저서가 있고,

논문으로서는 상대 우라시마코 전설 연구(논문) 외에 다수의 논문이 있다.

권인호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철학박사)

성균관대·경상대·한신대·경희대·방송대·국민대·고려대 대학원(철학과) 강사

대진대 인문과학대학 철학과 교수, 교수협의회 초대회장, 평생교육원 원장, 대학평의회 의장

인문학연구소장, 중국 운남민족대학 교환교수

한국유교학회 수석부회장 겸 편집위원장, 비판철학회 부회장, 의정부 참여연대 공동대표 겸 청년문화학교 교장, 포천사랑 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역임

현재 대진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수석부회장,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저서 『조선중기 사림파의 사회정치사상』-남명 조식과 내암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길사, 1995. 외 공저·공역 등 10여권

논문 「儒敎의 民本 政治思想과 國家主義 哲學 研究」-退溪의 '格君心'과 朴鍾鴻의 '皇道儒敎'적 <國民教育憲章> 批判-, 『南冥學』第15輯, 남명학연구원, 2010. 외 70여편

책을 펴내며

개방과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하나의 대륙인 유럽과 아시아 간에 경제, 문화, 교육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 관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천에 따라 유라시아에 대한 상호간의 역사와 문화,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는 지속적 관계를 위한 기본 요소이다. 역사와 문화는 경제적 요소와 더불어 현대의 국가 또는 지역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이를 활용한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은 유라시아 공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대의 잘 발달된 정보통신과 항공, 철도로 동·서간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거대 대륙 유라시아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부분적으로 오래된 종교적 갈등도 계속되고 있지만, 공동체적인 유라시아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과 조화, 서로간의 역사·문화적 이해와 존중, 문화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문화, 역사, 경제 등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 문제 해결 방법들이 결합을 통해 개방과 통합, 공유의 공동체적 모델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라시아역사문화콘텐츠학회의 전문 연구자들에 의한 유라시아 이해의 기본 자료 편찬은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 책의 내용 구성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제 1부에서는 고대에 동물을 이용하여 부족 또는 주요 조직의 상징을 나타내던 토렘에 대해 다루었다. 이 토렘은 아시아 상고와 고대사 기록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이라 볼 수 있다. 토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시작은 근대에 유럽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아시아에 소개되었다. 토렘은 아시아와 유럽, 세계 전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화적 요소이다.

제 2부의 유럽에 나타난 아시아 유목민 관련 서양 기록에 대한 연구는 360년대 아시아에 거주하던 훈족이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유라시아의 이동과 교류에 대해 다루었다. 훈족의 이동 이후 6세기의 아바르족, 7세기의 불가르족, 9세기 말의 마자르족 그리고 11세기 이후의 투르크족 등 중요한 움직임만 해도 다섯 번이 있다. 이후 몽골의 유럽 진출이 있다. 훈족의 이동은 고트족의 이동을 시발로 하여 많은 게르만족의 민족이동을 촉발하여 동서 로마 제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결국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여 사라지게 되었다. 내용 전반에 걸쳐 아시아 민족의 영향에 의한 유럽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시대별로 다루었다.

제 3부인 「한일 날개옷 연구」는 선학들의 연구방법을 근간으로 삼아, 접근방법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여, 고대인들의 천문학적인 인식을 토대로 작성된 논문이다. 내용은 한국과 일본, 몽골 날개옷과 관련한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관점은 선녀의 승천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에서만 남자 주인공이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난한 나무꾼인가 하는 문제와 선녀는 왜 자신의 자식들을 몽땅 데리고 가야만 했는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선녀의 승천은 은하수를 우주목(세계수)으로 인식하고, 은하수 넘어 이상향이 있다고 하는 고대인들의 우주관에 의거하여 창작된 것임을 구명하였다.

제 4부에서는 우리가 예로부터 인정해 온 우리의 핵심 가치인 유학의 민본(民本) 정치사상과 선비정신, 그리고 청빈과 청백리정신, 출처(出處)사상에 대한 논의의 글이다. 유학의 가르침(儒教)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인간 수양교육과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치를 행하여, 이 세상 천하를 공공적인 대동사회로 만드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다. 선비의 유학은 공자의 인(仁)과 인간의 삶(人生)의 철학이다.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란 뜻이다. 선비에 관련하여, 세간의 일반적인 생각은 벼슬과는 거리를 둔 재야의 지식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곧 출처사상이다. 청렴고결하며 근검절약하는 선비와 청백리 등의 고결함과 아름다움이 있었다.

이 책의 수록 내용은 유라시아 이해의 기초를 위해 2017년 4월 유라시아역사문화컨텐츠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선정, 편집한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라시아 공동의 이해와 교류에 도움이 되는 주제와 내용들을 발간하여 유라시아 이해와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017년 10월 10일
집필자들을 대표하여
문치웅 씀

**1부 고대 아시아 토템(Totem)의 서사구조를 통해 본 《史記》
〈오제본기〉의 이해와 비판 || 문치웅 · 장우순**

1. 글을 시작하며	10
2. 〈오제본기〉에 나타난 토템과 의미.....	14
3. 탄생설화와 토테미즘의 이데올로기	32
4. 글을 맺으며.....	37

2부 유럽에 나타난 아시아 유목민 관련 서양 기록 || 김현일

1. 머리말	42
2. 훈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서들	44
3. 아바르족 관련 기록	51
4. 불가르족	56
5. 마자르족	60
6. 맺음말	65

**3부 한·일 <날개옷설화> 연구 | 남자 주인공의 성격과 승천방법을
중심으로 || 이상준**

1. 서론	66
2. 몽골의 백조처녀설화	70
3. 일본의 문헌 <날개옷설화>	75
4. 한국의 구전 <선녀와 나무꾼>설화	81
5. 일본의 구비 <날개옷 설화>	107
6. 결론	112

4부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우리의 핵심 가치 | 유학의 민본 정치
와 선비정신, 淸貧과 淸白吏정신, 出處사상 || 권인호

1. 머리말	115
2. 사회정치적 실천자로서의 선비정신	118
3. 청빈과 청백리 및 出處大節에 철저한 선비정신	123
4. 정치지도자들의 선비정신과 비판정신	130
5. 맺음말	133